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55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6년 12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12 December

영유아의 사교육¹⁾ 노출, 이대로 괜찮은가?

I. 문제 제기

영유아들이 다양한 사교육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 시기의 과도한 사교육은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영유아가 발달 특성에 맞게 하루일과를 균형 있게 보내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사교육 이용 연령이 하향화되어 영유아들이 다양한 사교육에 노출되고 있음.
 - ▶ 1세 이전부터 문화센터에서 시작하여 미술, 음악, 발레, 수영, 스케이트 등의 예체능과목 뿐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학습과목을 위한 시간제 학원과 학습지 등을 이용하고 있음.
 - ▶ 정부의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영어학원, 놀이학원, 유아체능단 등 사설 반일제 이상 학원을 택하기도 함.
-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은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 영아기에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영아보다 정서불안 행동을 많이 보임.²⁾
 - ▶ 유아가 경험하는 사교육 수가 증가할수록 비행, 공격성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내재적 문제행동이 커짐.³⁾
-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II. 영유아의 하루일과 중 사교육 시간⁴⁾

2세아의 평일 하루일과 중 사교육 시간의 비중은 이용 기관에 따라 다르나, 가정양육 영아는 4.8%,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아는 19.8%에 이룸.

- 2세아의 경우, 평일 하루일과 중 사교육 시간 비중은 0.9~19.8% 정도임.
 - ▶ 어린이집에 다니는 2세아는 하루일과 중 기관 이용 시간이 32% 정도로 길기 때문에 하원 이후 사교육 시간의 비중은 0.9%(13분)이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학습과 예체능 사교육을 합하여 4.8%(70분) 수준임.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2세와 5세를 중심으로」(김은영·최효마·최지은·장미경, 2016)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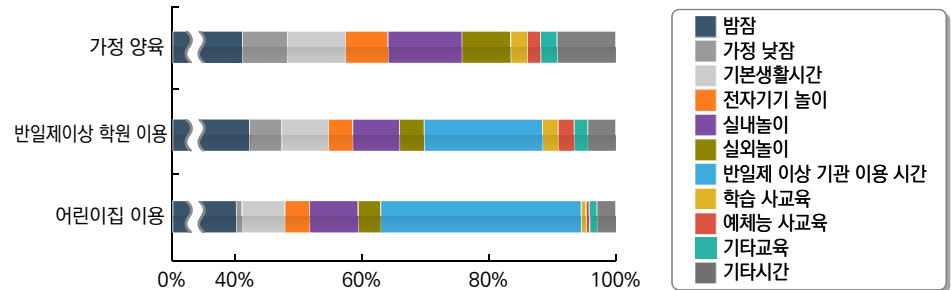
1) 본고에서 정의하는 사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외의 학원, 문화센터, 가정 등의 장소에서 개인 및 그룹교습으로 시간제 혹은 반일제로 이루어지는 예체능 활동(음악, 미술, 체육 등), 학습활동(수, 과학, 언어 등), 학습지와 온라인 학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2) 장은미(2008). 영아의 기질, 조기교육경험,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적응에서의 문제행동. 육아지원연구, 3(2), 33-50.

3)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4) 하루일과는 2세 부모 537명, 5세 부모 70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본고에서의 연령은 만 연령임.

- ▶ 영어학원, 놀이학원, 유아체능단 등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학원 이용 시간(4시간 28분) 중 점심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이 사교육 시간이므로 기관 이용 시간의 80%(3시간 34분)⁵⁾와 이후 사교육 시간을 합하면 하루일과 중 사교육 시간은 19.8%(4시간 45분) 정도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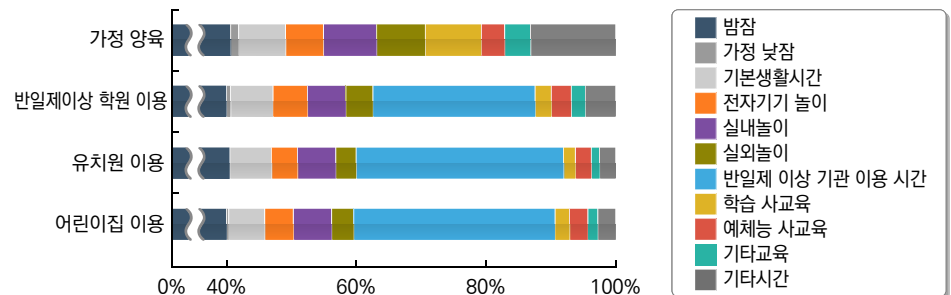
[그림 1] 2세아 평일의 하루 일과

주: 어린이집이나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기관에서의 낮잠이나 실내의 놀이 등은 세세하게 분석되지 않고 기관 이용 시간에 통합해서 제시하였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자료: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5세아의 평일 하루일과 중 사교육 시간의 비중 또한 이용 기관에 따라 다름. 2세와 경향은 유사하나 사교육 비중은 더 증가함.

- 5세아의 평일 하루일과 중 사교육 시간의 비중은 4.1~26.0%로 나타남.
 -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5세아는 사교육 시간의 비중이 각각 4.8%(68분), 4.1%(59분) 정도이며, 가정양육 5세아는 12.1%(2시간 55분)로 상대적으로 높음.
 - ▶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5세아의 사교육 비중은 학원 이용 시간(5시간 54분)의 83%(4시간 54분)⁶⁾와 이후 사교육 시간(81분)을 합하면 26.0%(6시간 15분)이상으로 나타남.



[그림 2] 5세아 평일의 하루 일과

주: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기관에서의 낮잠이나 실내의 놀이 등은 세세하게 분석되지 않고 기관 이용 시간에 통합해서 제시하였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자료: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III.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부모 인식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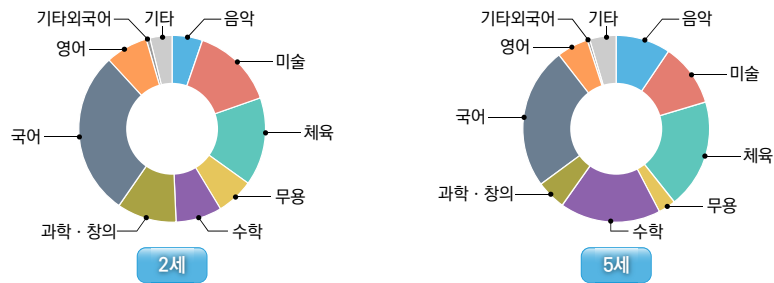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 주당 이용 횟수, 1회당 교육시간이 증가함.

- 조사대상 2세아의 35.5%, 5세아의 83.6%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음.
 - ▶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사교육 유형은 2세아의 경우 1.7가지, 5세아의 경우에는 2.2가지였음.

5) 2세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은 점심을 먹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점심을 먹는 경우 1시간 정도, 간혹 6시간 이상 운영하는 놀이학원의 경우 2세는 낮잠을 30분 정도 자는 경우도 있음. 나머지 시간은 과목별 학습이나 예체능 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상을 고려하여 사교육 시간을 80% 수준으로 추정함.
6) 5세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은 대체로 6시간 이상 운영이 되고, 그 중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과목별 수업으로 구성됨. 이상을 고려하여 사교육 시간을 83%로 추정함.
7) 사교육 실태 및 인식은 2세 부모 537명, 5세 부모 70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본고에서의 연령은 만 연령임.

영유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은 예체능보다 학습에 다소 치우친 경향이 있고, 절반 이상의 부모가 자녀의 현재 사교육 수준이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사교육 수준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27~40%로 나타남.

- ▶ 2세아의 주당 사교육 횟수는 2.6회, 1회당 교육시간은 47.6분이며, 5세아는 주당 사교육 횟수는 5.2회, 1회당 교육시간은 50.1분으로 나타남.⁸⁾
- ▶ 이는 장시간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과다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50분 내외의 사교육 수업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지 않음.
-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은 예체능보다는 학습 사교육이 더 많았음.
 - ▶ 2세아가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은 국어(한글, 독서, 논술 등)(28.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육(15.1%), 미술(14.5%), 과학·창의(10.2%), 수학(7.9%), 영어(7.7%) 순임.
 - ▶ 5세아가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은 국어(24.5%)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육(19.0%), 수학(17.3%), 미술(11.0%), 음악(9.4%), 영어(5.5%), 과학·창의(5.1%) 순임.



[그림 3] 2세아 및 5세아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 비율

- 부모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 수준이 적당하거나, 오히려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 2세아 부모 대부분은 현재 자녀가 참여하는 사교육이 적당하다고 인식(69.4%)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부족하다는 응답이 26.9%였음.
 - ▶ 5세아 부모 또한 현재 자녀의 사교육 수준이 적당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으며(54.3%), 부족하다는 응답은 40.1%로 나타났음. 특히 맞벌이 부모가 상대적으로 사교육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음.
- 사교육은 이른 시기에 시작되고, 처음 시작한 사교육 유형은 예체능이 많았으며, 4명 중 1명은 학습 성격이 강한 국어과목을 사교육으로 처음 시작함.
 - ▶ 2세아 부모가 응답한 사교육 시작연령은 평균 22개월이었음.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은 체육(39.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국어(23.3%), 미술(17.8%), 음악(15.6%) 순이었음.
 - ▶ 2세아 부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예체능 사교육 시작 시기는 평균 3.6세, 학습 사교육 시작 시기는 평균 4.6세로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음.
- 부모들 중 90% 이상은 향후 사교육 정책이 현재 영유아 사교육 현상의 유지나 활성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 ▶ 바람직한 사교육 정책의 방향으로 2세와 5세 부모 모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조기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 광고로 사교육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8) 사교육 횟수와 교육시간은 가정양육 영유아 뿐 아니라 기관이용 영유아의 기관이용 후 사교육을 모두 합한 결과임.

IV. 정책 제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한 하루일과에서의 균형 보장, 누리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 제시,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과 함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쇄신이 필요함.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한 하루일과에서의 균형 보장
 - ▶ 국외학자들이 제시하는 권장 숙제시간(집에서의 공부시간)에 영유아는 아예 제외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라도 하루에 0~30분(Cooper, 2008) 혹은 1주일에 15~20분 정도의 1~3개의 숙제(Zentall, 1999)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함.⁹⁾
 - ▶ 우리나라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학습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나타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특히 영아기의 사교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음.
 - ▶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 하루일과의 상당 부분이 학습으로 이루어져 초등학생도 소화하기 어려운 일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임.
- 국가수준 누리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홍보 강화
 -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국가수준의 누리과정이 초등교육과정과 우수한 연계성을 가지며 초등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장기종단 연구 수행 및 결과 공유를 통한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 제시
 - ▶ 학부모는 과도한 사교육이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현재 본인이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은 적절하거나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임.
 - ▶ 부모는 사교육을 접하는 시기로 4세 전후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훨씬 어린 연령부터 사교육에 노출시키고 있음.
 - ▶ 국가 수준에서 사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에 초점을 둔 장기종단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여 학부모에게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영유아 발달 이해 및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 ▶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교육철학이 뚜렷하면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녀의 기질 및 소질, 적성을 잘 파악하여 자녀가 흥미를 보이는 유형의 교육을 적기에 선택할 수 있음.
 - ▶ 자녀 연령이나 부모 배경에 따라 적절한 내용으로 부모의 접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함.
- 전반적인 교육정책 재고를 통한 사회 분위기 쇄신
 - ▶ 사교육 정책의 방향을 현재처럼 비용 감소에 두기보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함.
 - ▶ 어린 시기부터 자녀를 학습 관련 사교육으로 내모는 학부모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길을 만들어주고, 자신의 장점을 살려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음.

김은영 연구위원 keycandy@kicce.re.kr

9) 초록우산어린이재단(2016). 아동권리지표 개발연구보고서: 아동균형생활시간 권장기준 활용 및 분석.